



ESCO 문화를 진두지휘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손학식 에너지관리본부장

에너지, 열병합, ESCO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지닌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손학식 박사가 에너지관리본부장으로 새로 취임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모든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며, 후배 양성에 힘을 쏟을 것임을 천명한 손 본부장. 에너지관리본부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리더, 손학식 본부장을 만나보았다. 글 / 사진 최원근 프리랜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관리본부 운영방침에 대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기관의 이미지를 더욱 고취시키겠다고 말하는 손 본부장. 무엇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손 본부장은 우선 에너지관리 기술지도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임을 역설했다. 기존 효율적인 측면만을 강조했던 교육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와 연계된 다각적인 기술지도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도교육 역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도개선과 교육훈련 강화를 첫 과제로 삼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개선 및 강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손 본부장은 “산업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제도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아울러 손 본부장은 “ESCO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나가 ESCO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절약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집단에너지사업과 열병합발전 사업이라고 말하는 손 본부장. 실제 이와 관련한 책을 집필해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향후에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모든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본부는 총 5개의 부서로 수요관리실, 자금운용실, 온실가스감축기술지도실, 온실가스등록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T/F팀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에너



지관리본부는 공급자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실현, KCDM 제도를 통한 기후변화에 사전적 대응 노력, 산업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능동적이며 효과적인 기술지도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KCDM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손 본부장은 “KCDM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KCDM이란 일본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배출량감량인정제도(JCDM)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개발협력에 배출량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한편으론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있어 가속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손 본부장은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강화되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너지와 풍력 산업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후배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이다”

손 본부장은 현재에도, 향후에도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후배양성을 위해’라는.

향후에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소외 국가를 찾아 다니며,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는 손 본부장. 실제 교회에서 장로 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그는 교회의 교육위원장으로 봉사할 당시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건네주기도 했었다고.

후배양성에 대해선 두 말이 필요치 않다. 현재 송실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주 2회 전문인 양성을 위한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신재생 전력시스템, 온실가스 전기진단, 열병합발전으로 구성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된 <실용소규모 열병합발전>이 바로 손 본부장이 후배를 위해 2005년 집필한 책이다. 나아가 2008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진단원론>을, 그리고 지난 4월 <신재생설비 전력시스템>이란 책을 출간

“

ESCO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나가

ESCO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이다. ”

하기도 했다.

아울러 손 본부장은 “후배들을 대상으로 6~7년간 가르친 태양광에너지에 관한 책을 집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배들이 원서가 없이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열정과 도전의식을 앞세워 새로운 ESCO 분야를 만들고 싶다는 손 본부장. 이제 그의 희망찬 지휘아래 변모할 에너지관리본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Profile

손학식 본부장은 송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9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해 2010년 4월 에너지관리본부장으로 취임했으며, 송실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전기학회 분산전원연구회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실용소규모 열병합발전(2005년 출간, 도서출판 기다리),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진단원론(2008년 출간, 한국에너지정보센터), 신재생설비 전력시스템(2010년 출간, 한국에너지정보센터)이 있다.

